

# 筆巖書院 山仰會報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이낙연 (국회의원)

## 1. 하서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

하서 선생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중종(中宗) 4년에 태어났다. 이 때는 개혁가인 정암 조광조의 영향 속에 성리학적 이상론이 성행하고 과거제도를 개선하고 향약제도를 시행할 때였다. 그러나 1519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난 이후 김안로와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조정이 움직여지는 시대가 되었다. 1544년 중종이 붕어하고 인종(仁宗)이 즉위하여 개혁자들이 돌아왔으나 8개월 만에 인종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써 도학정치를 꿈꾸던 선비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다. 1545년 명종의 즉위로 권력을 잡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 2. 하서에 대한 우암 송시열의 평가

〈송자대전〉에서 우암은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사람은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서가 정암 조광조 등 기묘명현의 신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인종이 즉위하면서 마침내 신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는 하서 선생께서 그 계기를 열었다는 것이다.

하서는 “젊은 시절에 경세제민의 뜻을 품었으나 뜻을 숨길 때와 드러낼 때를 알아 고향에 돌아와 둔세무민(遜世無悶)으로 일생을 마쳤다.”고 했다.

우암은 “선생의 논의는 신기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았고, 복잡한 논리에 빠져 혼란하지도 않았으니, 평정명백(平正明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며, 넘어뜨리고 때려도 깨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제현의 학설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정밀하게 논변한 선생의 도학을 높이 평가했다.

우암은 하서의 문장은 “맑으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박절하지 않으며, 근심하면서도 심신을 손상하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모두 성정을 다스리고 도덕을 함양하는 것이어서 이치에 맞아 참으로 인의(仁義)의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하서의 학문을 ‘윤의집성(允矣集成)’이라고 요약했다.

## 3. 우암 외의 평가

정조(正祖)는 “선배들은 하서를 우리나라 400년의 제일 인물이라고 평했는데, 참으로 격

언이다. 김하서는 학문과 문장이 당세에 우뚝했고, 급류에서 기미를 보아 원우(元祐)의 완인(完人)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성리학사에서 이기(理氣)의 심성지설(心性之說)에 있어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한 분을 율곡 선생으로, 퇴계와 더불어 쌍벽이라고 칭송하나 정조대왕은 “문성공 율곡의 사단칠정 성리학설을 먼저 깨달은 선각 대현이 하서라”고 내세웠다.

율곡은 “안개 낀 20년간 김하서의 출처만이 매우 드높았다.” “하서의 출처의 올바름은 해동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서를 높이 평가했다.

하서의 학문은 16세기 중엽에 도학의 순정성을 지켜 후생들을 계도한 공이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즉 성리학이 일세를 풍미하게 하는데 퇴계 이황과 함께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하서에 대한 평가는 절의가 도학을 가렸는데, 이는 대유(大儒)로서의 하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최영성 교수는 주장했다.

#### 4. 하서의 출처(出處)

유자(儒者)는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에 절실한 임무와 역할이 부여된 중요한 존재다. 즉 유자의 출처거취는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시대의 흥망성쇠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 것이다.

율곡은 “이른바 진유(眞儒)란 조정에 나아가면 일시에 도(道)를 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을 누리게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오면 가르침을 만세에 드리워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

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서는 홍문관 부수찬이었을 때에 기묘명현의 신원을 상소하였고, 인종이 승하하자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이는 하서 선생이 어느 경우에도 경의(敬義)의 정신을 떠나지 않은 불리경(不離經)의 출처관을 보여준 것이다.

#### 5. 서양 정치사상과 비교: 正人 과 君主

하서 시대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1469~1527)는 군주론을 통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치인의 미덕으로 설파했다. 하서는 34세에 중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잘 다스리는 군주는 뛰어난 인재를 가까이 하고 선비들의 습속을 바르게함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사람(正人)이 없으면 간사함을 가릴수 없으니”라고 말했다. “이는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참다운 선비의 모습으로 보았음을 말하는데, 하서는 전생애를 통해 바른 사람의 본보기를 세상에 나타내주었다”고 사토 고에츠 츠쿠바데 교수는 주장했다.

정치로 나갔다가 좌절하고 돌아와 수양에 집중했던 하서는 정치를 포기한 소극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제대로 하는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진실로 오직 효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을.... 가정을 아니 나도 교화 이룬다.”〈하서전집〉고 하서는 말했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중에 치인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수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치인에 힘쓴다면 다스림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 수기를 완성하면 치인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 6.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모범을 보인 하서

스스로 닦는 사람만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으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깨우치는 방법을 택했다.

자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나라도 불행하게 된다. 하서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털끝만한 사(私)라도 단연 끊어야  
결치레만 힘쓰고 본(本)이 없다면  
이야말로 공자의 예운악운(禮云樂云)이로써  
하물며 부귀에 정이 끌리어  
뜬구름에 요행을 비란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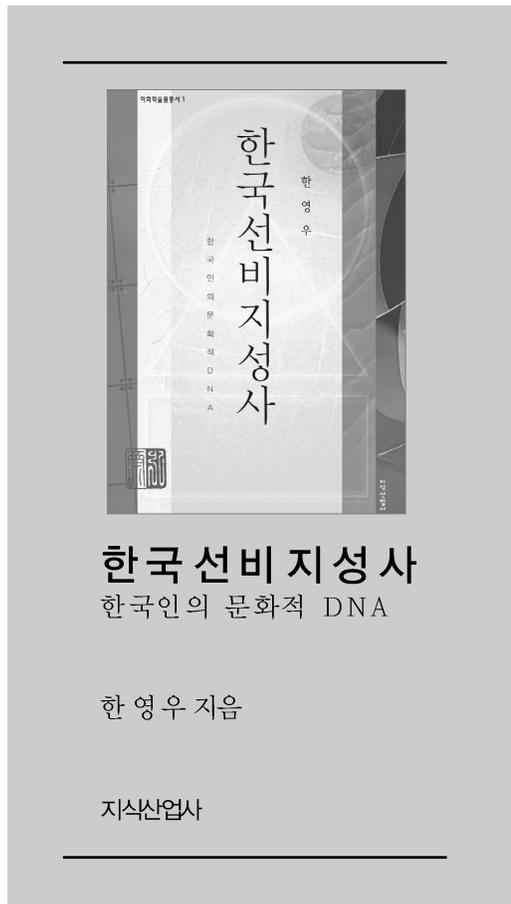
장성에 돌아온 뒤로 한번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수양에 주력했던 하서의 의리 정신은 단순한 저항의 차원을 넘어 큰 실천을 보여준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고 성규관대 이기동교수는 주장했다.

## 7. 프로 전성 시대

서구에서 근대에 생겨난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이를 위해 한 가지만을 잘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프로가 되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만, 경영인은 경영만, 교육

자는 교육만 공부하는 이른바 전공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종합적인 학문,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되는 길을 포기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사람이 아닌 것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아닌 것이 교육을 하고 사람이 아닌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학문을 통한 수양을 강조하고, 명확한 판단력과 의리를 바탕으로 진퇴를 명확히 했던 하서의 행적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山仰會 창립 과정과 운영 성과에 대하여

金容淑 (본회상임고문, 大東書院長, 전 문정공 부도유사)

## 1. 산양회 창립 동기

河西 金麟厚 선생은 천우(天祐)하여 아동(我東)에 종생(鐘生)하시니,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탁락(卓犖)하게 겸비하여 청구(靑丘)를 휘황하게 밝히시더라. 동국 18현(賢)의 한 분으로 문묘에 종향되 시어, 조선시대 열성조(列聖朝) 군왕(君王)과 동서고금의 많은 석학현인들이 백세의 종사(宗師)로 경 모숭양하니 오늘날 전국 유림(儒林)들이 경탄감개하도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선생의 사원(祠院)인 필암서원이 소유한 제향전답(祭享田畝)이 분배되어 춘추향사 봉행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에 전국 유림들은 고산양지(高山仰止)의 뜻을 모아, 회봉(晦峯 安圭容) 장보(章甫)를 대표로 산양계를 결성하여, 며 일두 내지 수두(數斗)를 자진 출연(出捐)하여, 서원 제향답 24두락을 구입 봉정함으로써 서원 운영 및 향사(享祀)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당시 전후 혼란기에 금싸라기같은 正祖를 출연한 산양계원 제위, 사암(沙巖 邊時淵)공과 본손 김영중(金英中)공의 노고가 많았으며, 본손 秀堂 김연수(金季洙) 삼양사(三養社) 회장께서 며 100섬을 출연하였다.

그러나 산양계는 반세기가 지나자 활동은 중단되고 계원 대다수가 고인(故人)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겨오던 필자 김용숙(당시 필암서원 별유사)이 분연 발의하여 고흥군(高亨坤) 원장을 비롯한 柳漢相 朴來鎬 등 필암서원 임원, 그리고 본손 김병주(金炳樞) 도유사, 金炳勳 등과 여러번 협의 끝에 산양계 정신을 계승하고,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현대에 재조명하여야 할 유회(儒會)를 결성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후 회칙 초안을 제정하고, 회장 후보를 내정한 후 취지문을 전국 뜻 있는 장보에게 발송하여, 2001년 8월 22일 드디어 필암서원에서 산양계 재발족 대회를 개최하였다.

250여명의 장보들이 운집한 가운데 하서선생을 백세종사(百世宗師)로 숭앙하고, 필암서원을 하서성학(河西聖學) 수련의 도량으로 영구 보존 발전시키며, 도학 절의 문장을 연구개발하여 사도(斯道)를 계승, 발흥한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경축 속에 山仰會가 창립되었다.

## 2. 산양회 조직과 운영

2001년 8월 22일 초대 회장에 차산(次山) 안진오(安晉吾) 장보를 선출하고, 고문에 高亨坤 등 24명, 부회장 김병훈 등 6명, 총무 김장수, 재무 양희택, 감사 김병근 등 2명, 연구위원에 김재수 등 6명이 선임되고, 회원이 252명이었다. 매년 정기, 임시총회 4회, 학술강연회를 네 번 개최하고, 산양 회보를 2회 발행기로 하여 본회의 기반을 견고히 하였다.

회칙에 따라 입회비 3만원, 연회비 4만원과 독지가 성금으로 약 2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여기에는 본손 남계 김상준(南溪 金相駿)공,慕巖 金老洙공, 松石 朴鐘達공, 三勉 高榮斗공, 裕堂 崔相玉공의 功이 컸다.

2003년 12월 2대 회장에 박종달 장보가 선출되어 4년 동안 재임하였고 회원이 350여 명에 이르렀다.

2007년에 4대 회장에 吳仁均 장보가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임하며 본 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2011년 8월 본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오인균 이사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이사가 선임됨으로써 書院儒會로 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모든 산양회원들이 先賢을 기리고 본받아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선비 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지금까지 본회를 이끌어온 관계자 제위의 일치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3. 하서 선생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학술 강연

2001년 3월 春享祭에 鄭兩連 박사가 ‘하서 김인후의 성리학’을, 2001년 秋享祭에 柳承國 박사가 ‘하서 선생의 天命思想’을 청절당에서 강론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춘추향사 후 매년 학술강연이 있었다.

2001년 8월 22일 ‘하서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안진오 회장의 강연을 효시로 김충렬 윤사순 금장태 송준호 백승중 오종일 박병호 박사, 중국 解光宇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의 46회에 걸친 학술 강연회가 필암서원과 (광주향교, 전주 덕진구 대강당, 장성군청 회의실, 성균관대) 강당 등에서 열렸다. 연인원 1만여명의 유림과 학생들이 청강하여 선생의 의적(懿績)을 드높이고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켜 되살려내려 노력하였다.

하서 선생 탄생 5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2009년 9월 20일 장성군청 회의실, 2010년 성균관대 강당에서 유승국 원장 주재로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국제학술발표회를 2회 개최하여 국제화를 꾀하였고, 이를 ‘河西 金麟厚의 道學思想과 現代文明’이란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 도서관과 유림에게 배포하였다.

2002년 12월에 山仰會報를 창간한 이래 선생의 遺稿와 각종 강연 내용과 선생에 대한 글, 본회의 활동을 수록하여 3천부를 이 고장 유림들과 필암서원 방문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산양회 소식지로써 역할을 다하였다. 12년 동안 20호를 발간하느라 편집주간인 김재수 부회장의 노고가 많았다.

#### 4. 적극적인 春秋享祀 참여

매년 음 2월과 8월 中丁日에 행하는 향사 奉行시에 수백명의 회원과 본손들이 적극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로써 하서 선생의 遺德과 사상을 기리고 顯彰하며 인륜도덕을 드높이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본 회원들은 우리나라 대표서원의 유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 5. 하서선생에 관한 서책 발간

본손 김병효가 지은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라는 책을 문정공 도유사였던 본손 김택수가 발행하였다. 특히 500년 전의 고어로 하서선생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百聯少解〉를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필자가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필자는 〈河西 金麟厚先生의 天命圖研究〉라는 책도 자비로 수천 부씩 발행하여 전국 도서관과 유림들에게 보급한 바 있다.

처참한 6.25한국전쟁 직후임에도 산양계를 창립했던 고산양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산양회원들은 하서선생의 숭고한 도학과 절의를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과 정서에 맞게 재해석하여 되살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산양회가 발족한 지 13년이 되었으므로 젊은 회원들을 적극 끌어들이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 소통과 설득을 존중하는 세종의 리더십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세종처럼 한국인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된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가 창제한 ‘훈민정음’ 하나만으로도 세종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성군(聖君)이다. 600년 전에 그가 만든 문자(한글)가 바로 오늘의 문자이며, 더욱이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을 듣고 있으니, 훈민정음의 세계화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세종을 당시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聖君)으로 부른 것은 다만 문자 창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업적에 반영된 세종의 마음이 세인을 감동시킨 것이다. ‘훈민정음’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세종의 정책은 감동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면, 세종은 아이를 낳은 관비(官婢)의

건강을 염려하여 종전에 보름간 주었던 출산 휴가를 100일로 늘리고, 출산 전 휴가로 30일을 더해 주었으며, 이것도 모자라 관비의 남편 즉 비부(嬖夫)에게도 3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 남편이 함께 휴가를 받아야 산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인도 아닌 천민의 출산 건강을 이토록 헤아렸다면 세종의 순수한 인간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의 배려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한 후세인들은 출산 휴가를 모두 반으로 줄여 《경국대전》에 명문화했다. 그래도 세종 이전의 상황과 견주어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의 하나가 세금 제도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세종은 종전의 토지세(土地稅)가 그 해의 풍흉 여부와 땅의 비옥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믿고, 이른바 연분 9등(年分九等)과 전분 6등(田分六等)이라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제를 바꾸면서 혹시라도 민생에 어려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몇 년간 상정소(詳定所)에 연구를 시키고, 여기서 만든 시안(試案)을 가지고 중앙의 관원과 지방의 유지인사 17만 명의 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세제를 바꿀 때 지주층인 관원은 반대가 많았고, 지방민들은 찬성이 많았는데 세종은 지방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도 시행착오를 염려하여 일부 지방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보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국가의 세입은 늘고, 농민의 부담은 가벼워졌으며, 지주층의 부담이 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워낙 합리적이고, 충분한 토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오랫동안 세제의 규범으로 정착된 것이다.

세종의 백성 사랑과 민본 정치는 그냥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렇듯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구현되었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백성의 믿음과 소통을 존중하는 배려가 얼마나 주밀하고 지혜로웠던가를 보여준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소통과 설득을 존중하는 것이 세종의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서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바로 이점 때문에 신분제를 옹호하는 신하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켰으나, 세종은 인사 제도에 관한 한 매우 고집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귀화한 일개 관노(官奴)였던 장영실(蔣英實)이 발탁되어 자격루(自擊漏)를 비롯한 위대한 과학기술의 업적을 냈던 것이다. 또 위구르족으로 귀화한 설순(揆循)을 집현전 학자로 등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그리고 화원(畫員)이라 하더라도, 뛰어난 인재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주는 파격성을 보여주면서 기술자들을 우대했다. 이렇게 신분을 초월한 인재 발탁과 기술자에 대한 우대가 바로 세종 대를 과학기술의 황금기로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 선비지성사 - 한영우 지음, 지식산업사, 312~315쪽에서〉

# 河西詩文에 나타나는 인간성 고찰

김장수 (본회 감사·동양문헌학회 이사)

## 1. 들어 가는 말

선유들의 학문과 사상을 논변함에 있어서 논자의 가치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필자는 논변의 정밀성보다 입언의 실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禮云禮云”의 형식논리가 배제되어야 학문사변(學問思辨)의 위학지요(爲學之要)에 부합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행동경(行篤敬)이 수신지요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지만 과공비례(過恭非禮)의 시비소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경> 「주서 태서상편」 8장에서 언급한 同力커든 度德하고 同德커든 度義한다는 내용이야말로 知와 行의 선후를 떠나서 도의의 실천력 즉 의리 정신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학문과 사상도 성리설의 논변과 함께 인성과 도의의 실천 여부를 아울러 살펴야 합니다.

하서학에 관심을 나타내는 일부 학자들이 그 범주를 도학 절의 문장으로 구분하여 각론을 삼기에 하서 선생의 인간적인 면은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서슬 퍼런 훈구세력에 맞서 정암 조광조 선생의 신원을 맨 처음 주장한 의리 정신이나 인종을 추모하여 매년 7월

남 몰래 난산에 가서 통곡을 한 절의는 쉽게 기억하지만 부부 부자 응서 친우간의 인간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서 선생의 문집에 수록된 시가 5언 고시 173, 절구 350수, 율시 264, 7언고시 73, 절구 471, 율시 217수와 기타 부, 사, 4언 고시 등 도합 1,598편의 많은 시가 수록되었지만 우암 송시열 선생의 시평에 “시경의 風과 雅에 근본하였고 초나라 굴원의 離騷나 문선, 당나라 두보와 이백을 참조하였다”는 교조적 수준에 머물러 경향이 있으며, 또한 후세 현대 학자들도 당풍(唐風)이니 송시(宋詩)니 논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일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道文一致의 餘世이기에 <백련초해>의 선집에서 보듯 정교한 대구(對句)를 사용하여 나타낸 하서 선생의 시적 언어를 도학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긍정하지만, 오히려 눈 여겨 보아야 할 사대사화 이후 새로운 시문의 형식이 과거공부에 대비하는 과체시(科體詩)보다는 소쇄원 48명 면양정 30명 광주상가요 등에서 보듯 연작시로 나타나면양정 가단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 호남의 시가 문학이 우리나라 시가문학의 주류를 이룬 사실에 대하여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유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자손들에게 가풍을 따라 진덕수업하고 효제충신을 당부하는 훈계의 편지 글은 범범히 보이지만 각개의 자녀에게 천륜을 나타내 보이는 시문은 많지 않습니다. 약간 비슷한 세대에 살았던 회재 이언적(1491-1553), 퇴계 이황(1501-1570)의 문집에 실린 시가 각각 250여수와 2,000여수로 상당함에도 사위나 딸, 아내에 대하여 쓴 시는 아주 드문데, 회재 선생은 정실 자녀가 없어서인지 고봉선생의 신도비명이나 퇴계 선생의 행장에도 자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퇴계 선생의 경우 사암 박순 선생께서 지은 퇴계 선생 묘지명에 이르기를 “자제를 대함에 일직 의관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다. 집안 사람들이 선생께서 기뻐하거나 성낸 낫빛을 보지 못하였다.”(對子弟 未嘗不冠 家人不見其有喜愠之色)하였으니 매우 엄격하셨다고 봅니다.

하서 선생은 인간 존재의 구현상 도의의 실천을 매우 중시하신 분이기에 군신 부자 부부 봉우 간에 있어서 인간적 본분으로 육친 간 소통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포용력이 크신 대인군자라 하겠습니다. 군신의 의와 사제의 도로서 인종 임금에 대한 도리에 극진하였고, 멀리 중성에 유배 생활을 하였던 친우 미암 유희춘(1513-1577)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어 어려움에 도왔고, 비록 학문적으로 이견이 있지만 19년 간 진도에 유배 생활을 한 소재 노수신(1515-1590)선생이나, 하서 선생 자부의 친정 아버지가 되는 일재 이항(1499-1576) 선생, 사위 양자징의 아버지 소쇄 양산보 등과는 여러 차례 편지와 시로 교분을 이어 갔던 남다른 배려는 도의를 실천하신 특출한 결과라 할 것이며 공평과 관용으로 각박하게 사람을 책망하지 않

고 애써 시비하려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서 선생의 시문에는 도학에 의한 구심력과 인간 본성의 순수한 詩心이 원심력이 되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서로가 긴장과 견제를 이룬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 시심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삶

하서 선생의 문집에 전하는 1,600편에 가까운 시문 모두가 앞에서 말한 도학에 의한 구심력과 순수한 인간 본성의 원심력이 내재되어 있어 철학과 사상이 압축되어 있다 하겠지만 지면 관계상 인간 본성에 기인한 순수한 시심 특히 육친간의 정감이나 인근 촌부들에게 느끼는 감회를 읊은 몇 편을 가려 싣고 읽으신 독자 스스로의 느낌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상전가 傷田歌

綠浪初經旱。  
黃雲尙趁秋。  
莖微難用銍。  
實小豈盈籌。  
草草看民事。  
悠悠抱國憂。  
無能慙獨飽。  
永夕倚南樓。

### 右刈麥

푸른물결 처음에는 가뭄을 겪더니,  
일렁이는 맥랑은 그래도 맥추를 맞네,  
즐기가 가늘어 낮으로 베기도 어려워  
열매마저 적어 어찌 삼태기에 차리오.  
초초한 백성의 생업 눈여겨보면  
유유한 나라 근심 안을 수밖에.

부끄럽게도 못난이 홀로 배불러  
긴 밤 남쪽 누정에 기대어 있으니,  
(위는 보리 베는 것을 보고)

麥隴收殘實。  
西疇復把犁。  
猶欣下種偏。  
更佇立苗齊。  
誰解心腸苦。  
應知筋力迷。  
歸來天不雨。  
空自望雲霓。

右種豆

보리밭에 이미 익은 곡식 거두고  
서쪽 이랑에 또 쟁기를 잡네.  
쭉쭉 씨 뿌려 오히려 기쁘고  
다시 가지런히 싹 솟기 기다린다오.  
심신의 괴로움을 누가 풀어 주리오.  
응당 근력도 없어 비실할 줄 아려니,  
씨 뿌리고 돌아와도 비 내리지 않아  
속절없이 구름만 바라보는 걸,  
(위는 콩심은 것을 보고서)

糧莠旱猶蕃。  
田家苦未言。  
地乾鋤不入。  
日嘆穀難存。  
撫萎方憐葉。  
培枯更護根。  
充飢非所望。  
切勿負田園。

右耘苗

피나 가라지 가뭄에도 더욱 번성해

농가의 괴로움 말로 다 못하네,  
땅은 메말라 호미도 안 들어가고  
불별 내리찍니 작물인들 남기 어려워라,  
잎들이 말라서 보기도 가엾어  
말라가는 포기 복돋아 뿌리 감싸네.  
주린 배 채우리라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농사일 저버릴 수 없구려,  
(위는 김매는 것을 보고서)

○贈內(아내에게 부침)

細君採菊來。  
以爲山翁壽。  
東牕映秋暉。  
狂詩吟醉後。  
세군이 국화꽃을 따오더니만  
산중 낭군 건강 위해 술을 빚었네,  
동쪽 창가을해 비출 석양 무렵엔  
흠뻑 취하여 시를 짓고 읊조릴 것이니,

其二

一臥此幾年。  
辛甘經歷滿。  
閒愁醉裡銷。  
倦夢東華斷。  
한 번 이곳에 머문 지 몇 해이던가?  
쓴 것 단 것 많은 일 겪었다오.  
잔 시름은 취한 김에 잊어버리고  
이따금 꿈꾸던 벼슬 생각도 끊어졌다오,

其三

大醉新豐酒。  
長吟彭澤詩。

風霜搖落處。  
隱逸我相知。  
이름 난 신흥주에 크게 취하여  
도연명의 귀거래사 긴 가락 뽑았네.  
바람서리 낙엽처럼 떨어져 뒹구는 처지를  
은자들은 내 모습 알아주리니,

○ 懷趙朔景范 希文。만사위 조희문을 그리다.

病裏相思苦。  
滄江十月雷。  
黃花方側地。  
不忍對空壘。  
병중이라 서로 그리움 더하니  
푸른 가람 시월에 뇌성이 들리네.  
국화는 활짝 피어 땅에 기우는데  
차마 빈 술잔 마주할 수 없구려.  
(조희문의 호는 月溪이니 장흥부사를 지냈다)

○ 戒 景范 사위 경범을 훈계하다,

聖人責於人  
常緩而不迫  
只欲事歸正  
無見人過惡  
성인께서 사람을 책망함에 있어서  
항상 느슨하여 다급하게 아니하였다.  
다만 일의 결말은 바른 곳으로 돌리고자 할 뿐  
사람의 잘못만을 드러내려 아니했느니.  
(이 시는 문중에 늙은 서손이 그 아버지를 빙자  
하여 적자를 내치고 그 기세로 화가 선생에게  
까지 미쳐 사는 집을 앗으려 하니 만사위 조희  
문이 노하여 관가에 알려 다스리려 하니 선생께

서 이 시로 훈계하고 또 이르기를 저절로 바르게  
정하여지는 때가 있는 것이니 절대 가벼히  
움직이지 말라 하셨다. 얼마 아니 되어 그 아버  
가 죽어 가문의 재앙이 저절로 진정되었으니 선  
생께서 악인을 관대하게 대함이 이와 같았다.)

○ 與虎兒 아들 종호에게

愛爾千金重。  
丁寧莫妄思。  
游心大小學。  
聖域是根基。  
천금보다 중한 너를 사랑하노니  
정녕코 망령된 생각 말아라.  
소학과 대학에 마음을 두면  
이것이 성역의 뿌리요 터전인 것을.

其二

大學工夫在。  
男兒莫外求。  
詞章非久遠。  
灼灼忌先秋。  
큰 학문은 대학에 있으니  
남아가 이밖엔 무엇을 구하리.  
시나 문장은 오래가지 못하니  
고운 꽃은 가을 앞서 시드노라.

○ 戒子 아들을 훈계하다.

忠孝傳家業。  
兒孫各戰兢。  
丁寧言行上。  
愛敬是良能。  
충효를 가업으로 전해 내리니

아들 손자 모두 조심들 해야지.  
정녕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과 공경이 본성을 드러냄이라(맹자진심편)

○ 示柳甥 셋째 사위 유경렴에게 보여주다  
萬里傳消息。  
長篇短簡聯。  
蒼顏何日對。  
吟罷一潸然。  
만리 밖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긴 사연과 짧막한 편지글이 연달았네.  
그리운 얼굴 어느 날에 마주할까?  
읽고 나니 한 줄기 눈물 스치네!  
(미암 유희춘 선생이 함경도 종성에 유배 중  
에 보낸 편지를 보고서)

○ 送柳甥歸觀鍾山 종산으로 근친가는 유생을  
보내면서  
萬里城頭病。  
三千塞外行。  
青尊春灑漫。  
白髮月分明。  
만리성에서 듣기도 머리 아픈데,  
삼천리 변방으로 길 떠나가구나.  
푸른빛 짙어 봄은 무르익어 가는데  
달 비추면 백발은 더욱 분명하리.

○ 與柳氏女(유씨집에 출가한 딸에게.)  
我友在朔方。  
汝夫隨萬里。  
秋風意無窮。  
野菊杯觴裡。  
내 벗은 차디찬 북녘에 있는데.

네 지아비는 만 리 먼 길 따라 갔구나.  
가을바람 스산하여 그지없는 생각들,  
들국화 술잔에 어른거리네.

○ 哭亡女 七月十八日死。是夜大風雨。  
망녀를 곡하다.  
(7월 18일에 죽었는데 이 날 밤에는 세찬 풍우  
가 있었다.)

萬事悠悠一蓋棺。  
千林搖落陣雲寒。  
沈綿旬朔形容苦。  
積累多年藥石難。  
怪雨盲風初斂日。  
殘蔬冷果送行盤。  
驚心烈焰延廬室。  
爾後身添百病干。  
만사가 유유하구나 관 덮고 나니  
모든 숲 스산하고 찬 구름만 끼었구나.  
한 보름 드러누워 그 모습 안쓰러웠지  
여러해 쌓인 병기 약석으로 다스리기 어려웠네.  
거센 바람 세찬 비 처음 엮한 그날에는  
쳐진 나물 찬 과일로 넋 보내는 상 마련하였네,  
놀랜 마음 매서운 불덩어리 방안에 뺏겼더니  
이네 몸 이후에는 온갖 질병 더하기만...

○ 哭亡子 망자(큰아들 종룡)를 곡함

三尺骸軀數寸棺。  
瞻言邗北眼長寒。  
可憐人事何嗟及。  
不弔天心欲恃難。  
嗚咽忍聞東野哭。

淒涼虛設退之盤。

一床書冊平生迹。

影響還臨夢寐干。

석자 몸 체구에 두 세치 두께 관이라,  
북망산 바라보니 눈이 늘 차갑구나,  
가련하다 사람의 일 슬퍼한들 무엇하리,  
아속한 하느님 마음 믿기도 어렵구려.  
대 끈길까 오열하는 맹동야의 곡소리 차마못 듣고  
처량하다 한퇴지의 제상차림 헛되었구려.  
책상에 남긴 서책 평생의 자취요,  
영향은 되돌아서 몽매간에 나타나네.

(당나라 시인 맹동야의 아들 셋이 연달아 어려서 죽자 슬피 우는 것을 위로하는 친우 한퇴지의 시가 있는데, 한퇴지도 딸을 여의고 슬퍼하여 지은 제문이 글로 전해진 것을 비유함)

### 3. 사람이 사람을 평한다는 것에 대한 고찰.

공자는 가족 끄나풀이 세 번이나 끓기도록 주역을 공부하였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을 것이라 하였으며 젊어서는 우리나라에 가서 도가의 노자에게 예학을 공부하기도 하였으니,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하신 분이시다. 주자도 소시에 아호사라는 절에 가서 공부하여 만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다. 공자께서 <논어> 「선진」 편에 제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하여 논평하였지만 깊이 상고하면 대부분 “그가 어진지는 모르지만(不知其仁이언정) 어찌...” 으로 시작하여 장점을 부각하였고 자고나 증자 자장이나 자로에 대한 성격의 특성을 언급하여 그 제자들의 성격 속의 은미한 장점을 취하였으니 “시아우삼야노 사야벽유야언(柴也愚參也魯 師也辟由也嘒)”가 고작이며 본뜻은

재능보다 덕성의 장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으니 공자의 심증을 증자의 부친 증점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여기점야(與其點也)”로 증명할 수 있다.

퇴계는 <언행록>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인물평을 하였는데 이덕홍이 물기를, “복재 기준(奇遵)이 이색(李穡)을 가리켜 부처에게 아첨하는 요망한 영웅이라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도 그로서는 반드시 안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물기를,

“선생께서 풍기에서 도백에게 올린 글에, 정길(鄭吉)·우재주(禹祭酒) 우탁(禹倬)·김점필(金佔畢) 김종직(金宗直) 등 여러 사람을 아울러 논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과연 큰 잘못이다. 점필은 결국 문장하는 선비일 뿐이다.” 하였다. 물기를,

“우리 동방 이학(理學)은 정포은을 조종으로 삼고, 김한훤(金寒暄) 김굉필(金宏弼), 조정암(趙靜庵), 조광조(趙光祖)를 우두머리로 삼는다. 다만 이 세 선생의 저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요즘 《晦齋集》을 보았는데, 그 학문의 바름과 그 터득함의 깊이가 거의 근세의 제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였다.

고봉 선생 문집 연보 15년 경신(1560) 고봉 선생 34세조에 의하면

퇴계 선생이 고봉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 3월에 글을 지어 하서(河西) 김공(金公)을 조문하였다.- 이해 8월에 고봉선생이 퇴계 선

생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곳에 하서(河西) 선생 김공(金公)이 계신데 장성(長城)에 사십니다. 저의 집과는 단지 오우명(五牛鳴)의 거리이므로 제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하서 선생께 의지하여 전에 배운 것을 강습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선생께서 갑자기 1월 16일에 병을 만나 돌아가시니, 사도(斯道)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마는 저의 불행은 더욱 심합니다. 매양 사색하다가 의심스러운 것을 여쭙어볼 곳이 없을 때면 번번이 하서 선생 생각이 나는데 뵈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슬픔을 참으려 하지만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도 하서 선생과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니 부음을 듣고 틀림없이 상심하고 애통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퇴계 선생의 답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김하서(金河西)는 반궁(泮宮)과 옥당(玉堂)에서 나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몸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밖을 표류했습니다. 그가 처음 들어간 곳이 대체로 노장(老莊)에 있었기 때문에 중년에 자못 시와 술로 몸가짐을 무너뜨린 것을 애석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그가 만년에 ‘이학’에 뜻을 두었다 하고, 근래 바야흐로 그의 학을 논한 ‘문자(文字)’를 보건대 그의 식견이 매우 정밀했습니다. 그가 閑居하는 가운데 터득한 것이 이와 같음을 생각하고 매우 가상하게 여겼습니다.”

또 김성일에게 말하기를, “김점필(金佔畢)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며, 그가 종신토록 했던 일은 다만 화려한 사장(詞章)에 있었으니, 그 문집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한

훤(寒暄)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학문에 대해서는 그 저술도 없고, 또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예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한훤의 학문이 실천하는 데 돈독했다고는 하나, 도에 있어서 묻고 배우는 공부에는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하다.” 하였으며

그에 앞서 말하기를,

“조정암(趙靜庵)은 타고난 자질이 비록 아름다웠으나, 학문에 충실하지 못하여 시행한 것에 지나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일에 패하고 말았다. 만일 학문에 충실하고 덕기(德器)가 이루어진 뒤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일을 담당하였더라면, 그 이론 바를 쉽게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였다.

“요순 때의 임금과 백성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무리 군자의 뜻이라 하더라도,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역량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묘년(1519, 중종14)의 실정(失政)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정암은 이미 실패할 줄 알고 자못 스스로 억제하였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잘못이라 하여 창을 거꾸로 해서 치고자 하였으니, 정암은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였다.

“우리 동방에 도학을 한 선비가 없지 않으나 문헌에서 찾아볼 길이 없으니, 그 조예의 깊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 궤주(禹祭酒)·정포은(鄭圃隱)은 시대가 멀고, 한훤(寒暄)·일두(一蠹)·정여창(鄭汝昌) 같은 여러 선비들은 전해들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지만, 또 찾을 수 없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근대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인데 그 학문이 매우 바르다. 그가 지은 문장을 보면, 모두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어서, 이치

가 밝고 의리가 발라 바로 그대로 하늘이 만든 것이니, 조예가 깊지 않고서야 능히 이럴 수 있겠는가.”하였다. 일찍이 우성전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암의 행장을 지을 때 그 타고난 자질의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지극히 말하였으나, 그 학력을 말한 곳은 비교적 적었다. 회재의 행장을 지을 때에는, 그 학력의 깊은 곳에 대해서는 지극히 말하였으나, 그 타고난 자질을 말한 곳은 비교적 소홀했다.”하였다.

일찍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에 대해 제자들이 물으니,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그의 의론을 보면 ‘기(氣)’를 논한 것은 지극히 정밀해 마치 않으나, 이(理)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기를 주장하는 데 너무 치우치기도 하고, 혹은 기를 이로 알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는 이보다 앞서 책을 지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와 기를 밝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처음이다. 다만 그가 말할 때에 자부함이 너무 지나친 것을 보면, 아마 그가 터득한 경지가 깊지 못한 것 같다.”하였다.

화담 서경덕은 일찍이 <귀신생사론(鬼神生死論)>을 지어, 박희정(朴希正) 민헌(民獻)·허태휘(許太輝) 엽(曄) 등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조남명(曹南冥 조식(曹植))이 단성 현감(丹城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여 나아가지 않고 상소할 때 시사(時事)를 논하였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대왕대비도 깊은 궁궐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있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를,

“조식의 상소를 보니, 불공한 말이 많으므로 큰 죄를 주려고 하였으나, 명색이 은사(隱士)이기 때문에 일단 불문에 부쳐 다스리지 않겠다.”

하였다. 모든 벼슬아치들이 그가 죄를 얻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퇴계선생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남명은 비록 이학(理學)으로써 자부하고 있지만, 그는 다만 일개의 기이한 선비일 뿐이다. 그의 의론이나 식견은 항상 신기한 것을 숭상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장에 힘쓰니, 이 어찌 참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는가.”하였다.

#### 4. 맺는 말

하서학에 있어서 하서 선생의 시문을 연구하는 관점은 지금까지 나타나는 경향에 대하여 모두가 소중한 가치 판단이라 하겠지만 기법의 다양화를 고려한다면, 조선조 16세기 초중반 즉 하서 선생의 시대에는 사대사회로 인하여 사람이 형성되었고 천명사상과 인본의 성리학이 발달한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 천변재이의 기상이 변이 빈발하여 특이한 자연환경에 처하였기 때문에 공구수성의 이재지도(恐懼修省)의 弛災之道를 도외시킬 수 없는 실정도 고려하여 할 것이며, 학문의 조술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고전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며 시대 간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인물의 평가에 있어서 같은 시대 함께 공유하였던 유현들, 즉 함께 호당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과거 동방제생 등이 동일한 사안 사건 즉 기묘 갑자 을사 정미 등 사회 피해자와 가화자인 훈구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감내하였는가를 학행에 추가하여 절의의 실천 정신을 살펴보면 독자 여러분의 탄성을 저절로 들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

# 尤庵과 同春의 河西 先生 尊崇

김문준 (건양대학교)

## 1. 하서와 동춘과 우암

한국 유학의 상징은 성균관(成均館)의 문묘(文廟)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묘는 도학(道學)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 유학을 나타내는 큰 특징이다. 중국 유학이 문묘(文廟)에 한당원(漢唐元) 대의 학자들과 양명학자(陽明學者)를 모두 수용하고 절의(節義)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문묘에 종사(從祀)한데 비해, 한국의 문묘는 정주(程朱)의 성리학에 집중하였으며, 체계적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준엄한 절의(節義)를 숭상하는 도학(道學)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로서 한국에서는 어떤 인물이 문묘에 종사되려면 도학에 남다른 사표(師表)가 되어야 하며, 남다른 사표가 된다는 의미는 '일생 동안의 절의'(節義)와 '체계적이고 깊은 성리학'(性理學)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sup>1)</sup>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선생은 모두 동방 18현에 들어 문묘에 종사되고 있는 분들로 한국 도학사에 우뚝 솟은 분들이다.<sup>2)</sup>

도학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공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리학을 통하여 '성선'(性善)을 공고하게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다. 인간성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나 현상적인 양태가 아니라 실재로 존재하는 '실체'로 규정하였으며, 그 속성은 '어질고 착하다'는 '성선'(性善)을 강력하게 부각시켰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어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 착하고 어질게 대

1) 본관 울산. 자후지(厚之). 호 하서(河西)·담재(澹齋). 시호 문정(文正)

2) 동방 18현 가운데 시호가 문정공(文正公)인 분은 4분인데, 조광조, 김인후, 송시열, 송준길 4분뿐이다. 시호에서 '문(文)'이란 '박학호문'(博學好文: 널리 배우고 글을 좋아함)이나, '근학호문'(勤學好問: 배움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이라는 뜻이고, 정(正)이란 '이정복지'(以正服之)라는 말로서 '정도(正道)로 사람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이다.

접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된 것이다. 인간은 본성이 선하므로 하늘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며 하늘처럼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성선 이론을 정치사상으로 연계하여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어진 정치를 해야 한다는 왕도사상을 정립했다. 인간성을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외적 통제와 전제(專制)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폭압(暴壓) 정치를 정당화하려는 학술과 정치 행위는 나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립했다. 이로써 인격(人格)과 국격(國格)이 정해졌다. 그리하여 옳음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이나 생명을 구차하게 도모하는 인격이나, 폭력과 강압과 권모술수를 쓰는 정치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다.

이에 도학자들은 인간 존엄성을 강력히 옹호하고, 개인의 부귀공명(富貴功名)보다 어질고 착한 도덕성을 우선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하서, 동춘, 우암 세 분은 모두 이러한 일에 일생을 매진하신 분들로서 후진인 동춘, 우암이 하서 선생을 지극히 존중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서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은 1590년(선조 23) 호남 유림들이 장성 기산리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였는데,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24년에 복원하였다가, 1659년(효종 10) 효종이 ‘필암’이라고 사액하라는 명이 있었고,<sup>3)</sup> 1662년(현종 3) ‘필암’이라고 사액(賜額)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수해로

다시 1672년 현재의 위치로 이군했다. 1672년이면 동춘의 나이 67세, 우암의 나이는 66세 되던 해이다.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하서 김인후 선생에 대한 존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동춘은 필암서원을 현재 이 자리에 짓는 데 가장 앞장 섰다. 다음 글은 서원 준공을 앞두고 동춘당이 당대의 절의(節義)의 상징인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인 김수항(金壽恒, 1629~1689)에게 상량문(上樑文)을 빨리 지어 보내라고 재촉한 편지 내용이다.

“장성(長城)의 서원에서 본래부터 하서(河西) 김 선생을 향사(享祀)하였는데, 수년 전에 필암(筆巖)이라는 사액을 내렸네. 그러나 그 터가 본래 기울어져서 합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의논이 오래전 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 세우고자 하였으나, 시일만 끝나지 않으니 결행하지 못하였네. 그런데 금년 여름에 그 원우(院宇)의 제실(諸室)이 모두 비에 허물어졌으므로 인해 옛 서원에서 몇 마장 거리에 위치한 추산(秋山) 밑 맑은 개울가의 죽림(竹林) 가운데로 옮겨 세우기로 하여, 공사를 이미 시작하였네. 그런데 여러 유생(儒生)은 반드시 대감의 상량문을 얻어 이 서원을 빛내기를 원한다고 하며 매우 간절히 청하니, 대감이 비록 일이 많겠지만 어찌 붓을 잡을 여가가 없겠는가. 유의(留意)해 속히 지어 보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네.”<sup>4)</sup>

3) 효종 21년, 10년(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윤3월28일(무자) 4번째 기사

4) 동춘당집 제13권 서(書) 김구지에게 줌 신해년(1671, 현종12)

그리고 필암서원을 다 짓고 난 후 다음과 같이 몸소 이건(移建) 고유문(告由文)을 지어 직접 고유하였다.

“원우(院宇)의 지세(地勢)가 좋지 못하므로 오래전 부터 옮겨 세우기를 논의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장마에 크게 파손되었기에 상의한 결과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추산(秋山) 아래에 있는 중등촌(重登村)으로 옮겨 세우고자 하여, 감히 그 사유를 고합니다.”<sup>5)</sup>

이러한 내력을 보면 동춘당이 필암서원을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암 역시 하서 선생을 기리는 일에 적극 앞장섰다. 우암은 <하서문집>에 「서(序)」를 썼다. 하서의 문집은 선조 1년(1568), 숙종 12년(1686), 순조 2년(1802) 등 모두 3번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중간(숙종 12) 때 송시열의 서(序)와 박세채(朴世采)의 ‘발(跋)’이 들어갔다. 또한 우암은 하서의 ‘신도비문’을 지었고, 그 비문 가운데 ‘청풍대절(淸風大節)이라는 글을 인용하여 강당을 ‘청절당(淸節堂)’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서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 문루의 ‘확연루(廓然樓)’ 현판은 우암이 쓴 것이고, 강당 대청마루의 ‘청절당’ 현판은 동춘당이 쓴 것이다. ‘장경각(藏經閣)’ 현판은 정조(正祖)의 어필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암과 동춘당,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조가 하서를 존송하는 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으며, 또한 필암서원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춘과 우암이 하서를 존송한 일은 <송자대전>에 기록된 동춘의 임종 자리에서 우암과 동춘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우암이 동춘(同春)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날로 돌아가 보았다. 선생이 이때에 화양에 있다가 동춘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는 곧 떠나서, 26일(병신) 아침에 동춘당(同春堂)에 이르니, 동춘이 손을 잡고 기뻐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형의 병이 이에 이르렀으니, 소요부(邵堯夫; 소옹)처럼 희학(戲謔:농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동춘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다.” 하였다. 동춘이 일찍이 병중에서 손자 병원(炳遠)에게 명하여 ‘고산양지(高山仰止)’ 4자를 써서 벽에 걸게 하고 말하기를, “우암이 이를 당할 수 있다.” 하고, 또 ‘한줄기 깨끗한 얼음’[一條淸氷] 4자를 써서 걸게 하고 말하기를, “이는 선배(先輩)들이 하서(河西)·울곡(栗谷)을 흠모하고 숭상한 말인데 지금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때 와서 ‘고산양지(高山仰止)’ 라고 쓴 글씨를 가리키며 선생에게 이르기를, “이 4자는 공에게 해당한다.” 하니, 선생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일조청빙(一條淸氷)’ 4자는 형에게

5) 동춘당집 제16권 축문(祝文), 長城筆巖書院移建告由文.

해당합니다.” 하니, 동춘은 “어찌 감히 하겠으며, 어찌 감히 하겠는가.” 하였다. 그 뒤 며칠 만에 동춘이 죽자 선생은 3개월 동안 복(服)을 입고 몹시 애석하게 여겼다.”<sup>6)</sup>

이처럼 동춘과 우암은 항상 하서와 율곡을 ‘일조청빙’(一條淸氷)이라고 칭송하면서 우리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춘당집>에서는 같은 날에 관한 기록이 <송자대전>에 기록된 내용과 약간 다르다.<sup>7)</sup> <송자대전>에서는 ‘일조청빙’(一條淸氷)이라 하고 <동춘당집>에서는 ‘일조청수’(一條淸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송자대전>에는 이 네 글자는 하서와 율곡을 칭하는 말이라고 하고 <동춘당집>에서는 사암(思菴; 朴淳)과 율곡을 폄평한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조청빙’<sup>8)</sup>이라는 말은 전거가 있는 말이어도 ‘일조청수’라는 말은 시에 쓰는 일반적인 문구이니 <동춘당집> 보다는 <송자대전>의 내용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 2. 하서의 일생과 도학

하서는 동방 18현 가운데 한 분으로 절의(節

義) 실천과 성경(誠敬)으로 일관한 학문으로 한국 도학사에 우뚝 솟은 분이다. 하서는 험난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학을 바로 세우고 이황, 이항, 기대승 등 당대의 명유들과 학술을 교류하면서 도덕 실천과 함께 태극론 등 성리학 연구를 중시하여 한 차원 높은 한국 도학 발전을 선도했다.

하서 선생은 1510년에 전라도 장성(長城)에서 출생했다. 1519년에 10살이던 하서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김안국(金安國)을 찾아가 <소학>(小學)을 공부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김안국이 여주로 귀향한 후, 독학(獨學)으로 13세에 <詩經>을 읽는 등 18세까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공부했다. 14세에 여흥윤씨 현감 윤임형(尹任衡)의 딸과 혼인했다. 18세 되던 무렵 동복(同福; 和順)에 유배와 있던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1483~?)와 1529년에 광주로 귀향한 놀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을 찾아가 수학했다. 최산두는 기묘(己卯) 명현(明賢)으로 윤구, 유성춘 등과 함께 호남의 3걸(傑)로 일컬어지던 분이 며, 박상은 당대에 김정(金淨)과 함께 직언(直言)으로 유명한 곧은 선비였다. 이러한 수학 과정은 하서가 정통 도학을 전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송자대전』 부록 제6권, 연보(年譜) 5, 승정(崇禎) 45년 입자, 선생 66세, 11월 24일(을미)

先生時在華陽, 聞即發行。丁酉朝, 至同春堂, 同春握手欣慰。先生曰, 兄疾至此, 可能如邵堯夫之戲謔乎。同春曰, 顧我無此力量。同春問當於病中, 命其孫孫炳處書高山仰止四字, 揭之壁上曰, 尤菴可以當此。又書揭一條淸氷四字曰, 此先輩欽尚河西, 栗谷語。而今世未見如此人, 至是指高山仰止字而謂先生曰, 此四字惟公可以當之。先生辭之而曰, 一條淸氷四字, 惟兄可以當之。同春曰, 何敢何敢。後數日同春歿

7) 동춘당집 속집 제10권, 부록 5, 입자(1672) 승정 45년(현종13), 선생의 나이 67세.

8) ‘一條淸氷’이라는 말은 송(宋)나라의 한림(翰林) 진팽년(陳彭年)을 칭송한 말로서 사람들이 직책은 문헌의 청직과 요직을 겸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르기를 한 가닥의 맑은 얼음이라고 했다(職兼文翰之淸要 時人謂之一條氷; 〈林宗庇上座主權學士謝及第啓通〉)

19세인 중종 23(1528) 칠석(七夕)에 행하는 제술(製述) 시험인 성균관 칠석제(七夕製) 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다. 중종 24년(1531년) 22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24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9살 연상의 이황(李滉; 1501~1570)과 함께 강학했다.

중종 35년(1540년) 하서의 나이 31세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고 이듬해인 32세에 홍문록(弘文錄)에 뽑히고, 4월에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게 되었으며, 함께 뽑힌 12인과 호당수계록(湖堂修禋錄)을 만들었다. 10월에 홍문관 정자(正字)가 되었다.

중종 38년(1543년) 34세에 홍문관 박사겸 세자시강원이 되어 당시 세자였던 인종과 사제(師弟)의 관계가 되었다. 이때 세자(후에 仁宗)가 자신이 그린 묵죽도(墨竹圖)를 하사했다. 6월에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으로 재직할 때 기묘(己卯) 사림(士林)에 연루된 사림들의 신원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하서는 부모를 봉양한다고 외직을 자청하여 옥과(玉果: 전라남도 곡성) 현감이 되어 조정을 떠났다. 하서는 1545년(인종 1)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 뒤에는 누차 전적(典籍), 교리(校理), 직강(直講)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장성(長城)으로 돌아와 성리학에 전념했다.

하서가 한국 도학사에 남긴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시들어 있던 도학을 다시 살리기 시작한 공이다. 하서가 살았던 16세기 초는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시기였다. 하서가 정계로 나아간 시기는 사림들이 16세기 초에 조광조

등 사람이 많이 죽임을 당한 기묘사화(1519, 중종 14)의 충격에서 차츰 벗어나 다시 정계에 나와 새 시대를 열어가려 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다시 명종이 즉위하고 을사사화(1545, 명종 즉위년)가 일어나 사람이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여파로 문정대비와 위정자들을 비방하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 송인수 등이 사형당하고 이언적 등 20여 명이 유배당하는 정미사화(명종 2, 1547)가 일어났다. 이듬해에는 홍문관 박사 안명세(安明世)가 을사사화 전후의 시정기(時政記)에 윤임을 찬양하였다 하여 사형되었다. 이처럼 을사사화 이래 수년 간 윤원형 일파의 음모로 화를 입은 명사들은 100여 명에 달하였다. 을사사화는 윤씨 외척간의 싸움이었으나 실상은 훈구파가 사림파를 공격하는 과정이었다. 사림파는 이러한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세력이 약해졌다.

이러한 난국기에 하서는 젊은 시절에 종종 때 벼슬에 나간 이후에는 명종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칭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36세인 인종 1년(1545) 4월, 제술관(製述官)의 소명(召命)을 받았으나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옥과현으로 돌아갔다. 7월에 인종이 승하하자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귀향했다. 중종 38년(1543) 6월에 검토포관으로서 주강(書講)에 나아가 당시에 어느 누구도 도학을 말하기 꺼려하던 시절에 기묘사림(己卯士林)들이 주장한 ‘소학(小學)과 ‘향약(鄉約)’을 다시 일으킬 것을 청하였다. 하서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한국 도학을 되살리고, 자신의 학통을 바로 세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서는 김안국의 제자이다. 김안국은 조광조(趙光祖:1482~1519)와 함께 ‘소학군자(小學君子)’로 칭해지

는 김굉필(金宏弼:1454~1504)의 문인이다. 김굉필은 김종직을 이어 한국 도학의 도통을 이은 분으로 갑자사화 때 극형에 처해졌다. 김안국은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겨우 화를 면하고 경기도 이천에 은거하였다. 따라서 하서는 기묘 명현을 신원하여 자신의 학통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한국의 도학을 바로 세우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었다.

둘째, 한국 도학의 학문인 성리학 발전에 남긴 업적이다. 하서는 송나라 정주학과 포은 정몽주, 정암 조광조로부터 내려온 학통을 이어받아 소학, 대학, 중용, 효경, 서명, 역경을 평생 연구하였고 도학 실천을 추구했다. 하서는 39세(명종 3, 1548)에 순창(淳昌) 점암촌(點巖村)에 은거했다. 그후 9년 후 48세(명종 12, 1557)에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를 저술했다. 49세(명종 13, 1558) 겨울에 기대승(奇大升)과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강론했다.<sup>9)</sup> 50세(명종 14, 1559)에 이항(李恒)과 서신으로 태극음양을 논하였고, 기대승과 함께 사단칠정을 논했다. 나흠순(羅欽順)의 인심도심설을 논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하서의 성리학문은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당시 문경공 김굉필(金宏弼)의 적전(嫡傳)으로 일컬어진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

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하여,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분명하며 태극과 음양은 일물(一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했다. 하서는 우주관, 인성관, 수양론, 경세론, 의리론이 집약되어 있는 《주역관상편》, 《서명사천도》, 《천명도》 등을 지었는데 현재는 아쉽게도 천명도만 남아 있다.

수양론으로는 정(靜)과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하서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이라고 주장하여 정(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노수신(盧守愼)과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를 논하여서는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마음에는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해야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고 경(敬)을 중시했다.

### 3. 하서의 문묘 종사 과정

하서는 현종 9년(1668)에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고, 현종 10년(1669)에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가, 정조 20년(1796)에 영의정에 증직되고, 10월에 '문정(文正)'으로 시호를 고쳐 받았으며, 11월에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9) 기대승은 당시 32세로 3월에 두류산(頭流山, 지리산)을 유람하고, 7월에 김인후를 배알했다. 이때 정추만(鄭秋巒)이 기대승을 찾아와 《천명도설》(天命圖說)에 대해 강론했다. 《천명도》(天命圖)는 김인후(金麟厚) 등이 찬술하고 이항이 윤색한 것으로 《중용》(中庸), 《태극도》(太極圖) 등의 글과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기대승은 그해 10월에 문과 을과(乙科)로 급제한 후, 퇴계 선생을 배알하고 사단·칠정을 논하였다. 기대승은 33세에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을 지었으며, 다음해인 34세 8월에 퇴계 선생에게 편지를 올려 사단·칠정을 논하였다.

하서의 학문과 인품은 그의 문묘 종사 과정에서 하서의 문묘 배향을 청하는 선비들과 정조가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하서가 문묘에 종사된 해는 정조 20년(1796)으로서 우암 송시열이 타계한 지 107년 후의 일이다. 그러나 하서의 문묘 종사는 우암의 하서 존숭이 큰 바탕이 되었다. 영조 32년(1756) 4월에 하서가 지냈던 옥과 현감으로 부임한 늑천(櫟泉) 송명흠(宋明欽:1705~1768)이 김인후 등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이 그의 묘비를 지었는데, 이르기를, ‘한 마음으로 삼재(三才)를 조화하는 묘(妙)를 포함했고, 한 몸으로 만세 강상(綱常)의 무거움을 맡았다.’ 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맑고 통달한 지식은 어지러운 사물(事物)의 밖에 초월하였고, 깊이 도달하고 두터이 쌓은 것은 정밀하고 정대한 영역에 나아갔다. 그 맑은 풍채와 큰 절개(節介)는 기운을 용동(聳動)시키고 빛을 펼쳐 완만(頑慢)한 자는 청렴하게 하고 겁장이는 바로 서게 하였으니, 비록 백세의 스승이라 해도 가하다.’ 고 하였으니, 이 몇 구절만으로도 그 조예와 수립이 크게 이루어졌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0)</sup>

이처럼 송명흠은 하서의 사액 요청 이유를 전적으로 우암이 찬술한 신도비문에 의거하여 건의하였다. 하서의 문묘종사 건의는 하서가 돌아가신 지 211년이 되는 영조 47년(1771)부터 전국 유생들이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정조 14년에 유생 이악겸(李岳謙)이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의 내용 역시 다음과 같이 율곡의 평과 우암의 칭송에 의거하고 있다.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靖公) 김인후는 그 도덕(道德)이 실로 문묘(文廟)에 함께 제향해야 할 사람입니다. 선정신 문정공 송시열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인물 가운데 도덕과 절의와 문장을 모두 지니고 치우침이 없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도와 하서(河西) 김선생(金先生)을 태어나게 하였으니, 그는 거의 이에 가까운 분이다.’ 고 하였으며, 선정신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瑀)도 말하기를 ‘맑은 물에 핀 연꽃같고 비 갠 뒤 맑은 바람 속의 밝은 달과 같다. 출처(出處)가 올바르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고 하였습니니다.”<sup>11)</sup>

율곡은 “맑은 물에 핀 연꽃같고 비 갠 뒤 맑은 바람 속의 밝은 달과 같다.”(淸水芙蓉, 光風霽

10) 영조 87권, 32년(1756병자/청 건륭(乾隆) 21년) 4월 14일(신해) 1번째기사

11) 正祖 29卷, 14年(1790庚戌/청 건륭(乾隆) 55年) 3月 22日(壬寅) 3번째기사, “方外儒生幼學李岳謙等上疏曰: 先正文靖公金麟厚道德, 實合於從享. 先正文正公宋時烈有曰: “國朝人物, 道德節義, 文章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佑我東, 鍾出河西金先生, 殆庶幾矣.” 先正文成公李瑀亦曰: “淸水芙蓉, 光風霽月. 出處之正, 海東無與倫比.” 夫以從享之大賢, 其所景仰而讚美, 至於如此, 則其於從享之議, 孰敢間然? 伏乞 聖舉先正文靖公從祀文廟之典, 以重吾道, 以光世教.

月), “출처의 바름은 우리나라에 견줄 이가 없다”(出處之正, 海東無與倫比)고 하였고, 우암은 “도덕과 절의와 문장을 모두 지니면서 치우침이 없는 분”(道德節義文章兼有而不偏者)이라고 하였다.

정조 또한 하서에 대한 존숭이 남달랐다. 정조는 우암에 대한 존숭이 남달랐는데, 경기도 여주에 우암을 기리는 사당을 지어 대로사(大老祠)라고 칭하였으며, 우암 문집을 평양 감영에서 인쇄하게 하고 그 책명을 <송자대전>이라고 하여 우암을 ‘송자’(宋子)라 칭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러한 정조가 우암이 그랬듯이 하서를 높이 존숭했다.

정조 20년 당시에는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과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선생도 함께 문묘에 종향하기를 요청하는 상소가 있기도 하였으나 정조는 문정공을 먼저 종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했다.<sup>12)</sup>

정조는 하서를 칭송하여 정조 20년(1796) 9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문정의 도학(道學)의 진정함과 독실함이 내가 평소 높여 숭상하던 바로서, 그 실행을 먼저 하고 앎을 뒤로 하는 것[先行後知]과 안은 곧게 하고 밖은 반듯하게 했던 공부[直內方外]로 말한다면 실로 우리 동방의 첫 번째 사람[我東

第一人]이니, 문장이나 절의는 오히려 그 다음 일에 속한다.”<sup>13)</sup>

라고 그 인품과 도학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해 9월에 관학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이 상소하여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거듭 청하니, 정조는 다음과 같이 비답했다.

“선정(先正) 문정공은 바로 우리 동방의 주자(周子)이다. 이정(二程)·장재(張載)·주자(朱子)를 먼저 공자 사당에 종사하면서 주자(周子)만 홀로 종사하는 반열에서 빠뜨린다면 이정·장재·주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오늘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바로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마음이다.”<sup>14)</sup>

이처럼 정조는 하서를 ‘우리 동방의 주자(我東之周子)라 칭했다. 주자(周子)는 북송 5현 가운데 한 사람이자 ‘태극도’를 그린 주돈이(周敦頤, 1017~1073, 호는 염계(濂溪)를 의미한다. 이날 김인후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불천지묘를 허락한다고 명했다. 그리고 두 달 후, 하서가 돌아가신 지 236년만인 1796년 11월에 문묘 종사되었다.

12) 정조 44권, 20년(1796 병진 / 청 순치(順治) 1년) 6월 22일(병신) 2번째기사

13) 정조 45권, 20년(1796 병진 / 청 순치(順治) 1년) 8월 8일(경진) 3번째기사 : “召見疏齋李奎南等, 謂曰: “金文靖道學之真正篤實, 予之素所尊尚, 若言其先行後知, 直內方外之工, 則實爲我東第一人, 而文章也, 猶屬第二件事.”

14) 정조 45권, 20년(1796 병진 / 청 순치(順治) 1년) 9월 17일(기미) 2번째기사

#### 4. 우암의 하서 평가

우암은 하서 선생의 '신도비명'에서 하서 선생을 칭송하기를, “본조 인물의 도학(道學)· 절의(節義)· 문장(文章)이 각기 차등이 있어서 이 모두를 겸하여 치우치지 않은 이가 거의 드문데,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배출시킨 하서 김 선생만은 예외인 것 같다.”<sup>15)</sup>고 칭송했다. 우암은 하서의 어떤 면모를 보고 이렇게 극찬한 것인가? ‘도학(道學)· 절의(節義)· 문장(文章)을 모두 겸하여 치우치지 않은 이’라고 평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암은 도학 군자로서의 하서 선생을 높이 칭송했다. 조선 선비는 도학 군자로서 학문과 행실이 모두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우암은 하서가 두 살 때부터 신(履)을 똑바로 신었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외물(外物: 물욕)에는 일절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서적(書籍)과 한묵(翰墨)만을 좋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우암은 하서의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선생은 천품이 ‘청명온수(淸明溫粹)하고 흥금이 쇠락하므로 사람들이 ‘청수부용(淸水芙蓉: 맑은 물속의 부용)에 비유하였으며, 뜻을 세우고 학문을 하는 데는 이치를 궁리하고 경(敬)을 주로 삼고,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는 공

부를 쌓았으므로, 그 깊은 조예를 남이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하서의 학문 연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대저 선생은 처음 김모재(金慕齋; 김안국)에게서 《소학(小學)》을 배워 공력이 가장 깊었고 《대학(大學)》에 있어서는 혼자 단정히 앉아 1천 번이나 읽었는가 하면, 되풀이해서 실마리를 찾아내어 터득하고야 말았다. 이후부터 문인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도 이 과정을 변동한 적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일부(一部)의 《대학》 안에는 체용(體用)이 구비하고, 조리가 정돈되어 있다. 이 글을 제외하고는 도(道)에 나아갈 수 없다. 이 글을 읽지 않고 다른 경(經)을 보려 하는 것은, 마치 집터를 닦지 않고 집부터 먼저 지으려는 것과 같다.”

하서의 학문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저 선생은 도리(道理)에 환하여 의혹이 없어 묻는 대로 답하기를 마치 소매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 주듯 하되, 모두 뿔뿔하고 적절하였으므로 아무리 퇴계같이 정밀한 학문으로도 누차 자신의 소견을 버리고 따랐으며, 문원공(文元公: 김장생) 김 선생도 선생의 설로써 예서(禮書)를 고증한 곳이 많았다. 선생의 의논은 신기(新奇)한 데 유혹되거나 격요(繳繞: 테두리에 얽

15) 宋子大全卷一百五十四, 碑 ; 河西金先生神道碑銘 并序, ‘國朝人物道學節義文章?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佑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매임)에 현란(眩亂:정신을 못차리게 어수선풀) 되지 않고 그저 ‘평정명백(平正明白)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부수려 하여도 부쉬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은 도(道)를 안다고 자부(自負)하지 않고 언제나 부족해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지은 다음 시(詩)에 의하면 선생의 지취(志趣)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천지의 중간에 두 사람 있으니  
 / 天地中間有二人  
 공자(孔子)는 원기요 주자(朱子)는 진기일세  
 / 仲尼元氣紫陽眞

한편, 하서는 부수찬(副修撰)으로 재임할 때 동궁에 발생한 작서(灼鼠)의 변(變)이 일어나자 차자(筓子)를 올렸는데, 이 차자에서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였다. 우암은 이 일에 대해 “이로부터 중중이 정암(靜菴) 등 제현(諸賢)의 억울함을 절실히 시인하고, 자못 회오(悔悟)하는 뜻을 보였고 그 뒤에도 신원(伸冤)을 청하는 이가 더욱 많았다가 마침내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통과한 신원의 명이 내려졌으니, 이는 선생이 그 기회를 열어 놓은 것이다.”

둘째, 하서의 절의에 관한 평이다. 우암은 하서의 출처(出處)의 의리를 높이 평가했다. 하서는 조정에 나아가 도를 펴려다가 인종이 승하하자 아직 젊은 나이에 조정의 연이은 징소(徵召)에도 불구하고 일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우암은 하서의 절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경제(經濟: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뜻이 있었다. 김안로(金安

老)가 죽임을 당한 후 김모재(金慕齋:김안국)·이회재(李晦齋:이언직) 등 여러 선생이 점차 기용되었으나 선생만은 시사의 기미를 간파하고 즉시 물러날 뜻을 두었으며, 인종이 승하한 뒤에는 너무 놀라고 애통해하다가 기절하여 생(生)을 그만둘 듯이 하였고 집 안에 들어앉아 폐인으로 자처하여 세상사를 단념하여, 사자(死者)를 보내고 생자(生者)를 섬기려는 의사조차 전혀 없었으며, 매년 7월 1일이 되면 즉시 집 남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들어가 통곡하다가 날이 새어서야 돌아오곤 하였다. 이는 인종 승하의 원인을 감히 물을 수 없어 그저 속으로만 애통해할 뿐,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끝내 알지 못하였다.”

셋째, 우암은 하서의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저작(著作)에는 풍아(風雅)를 근본으로, 소선(騷選)·이두(李杜:이백과 두보)를 참고로 하였고, 감촉되는 바가 있을 적에는 일체 시(詩)를 읊어 발산시키되, 청절(淸絶)하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간절하면서도 촉박하지 않고, 즐거우면서도 음탕한 데 이르지 않고 걱정스러우면서도 애상(哀傷)한 데 이르지 않으니, 이는 성정(性情)이 다스려지고 도덕이 함축된 때문이다. 그 소장(疏章)은 통창전아(通暢典雅)하여 으레 도리가 앞섰으니, 참으로 인의(仁義)에서 나온 말이였다.”

이처럼 우암은 하서의 인종(仁宗)에 대한 절의, 그리고 청절(淸節)하고 전아(典雅)한 문장을 높이 칭송했다.

## 5. 맺는말

우암은 학문과 절의를 모두 갖춘 하서의 생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본조(本朝)의 종유 명현(宗儒名賢)이 이따금 정도(正道)가 침체된 시기에 나서서 주선(周旋: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위이(委蛇: 정세에 순응하여 대처함)하여 사직을 붙들고 사림을 구제하려다가 신명까지 상실하곤 하였으나, 선생은 스스로 시기의 미(微)와 현(顯)을 알아 세상을 등지고 미련없이 인생을 마쳤으니, 이로써 본다면 그 밝은 지(知)와 통달한 식견이 어지러운 사물(事物) 밖에 초월하고 깊은 조예와 두터운 덕이 정밀 정대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 청풍 대절(淸風大節)은 온 세상에 진동하여 탐욕스러운 자가 청렴해지고 겁 많은 자가 자립(自立)하게 되었으니, 백세(百世)의 스승이라 하여도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사실 바른 도학(道學)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람이란 반드시 도를 알아야 하는데, 도를 알려면 학문을 버리고서야 어찌 되겠는가. 세상에서 한갓 절의(節義)만으로 선생을 논하는 이는 얕은 지견(知見)이라 하겠다.”

이로서 우암은 다음과 같이 명(銘)하였다.

아 선생은	/ 於惟先生
천부가 특이하여	/ 天賦之異
아 선생은	/ 於惟先生
기질이 청수하고	/ 質粹氣淸
지력이 옹호하며	/ 志豪力雄
용맹스레 옛것에 매진해	/ 勇邁終古
광대 고명한 데 이르렀네	/ 廣大高明

여러 학설(學說) 다 섭렵하고는	/ 既極群言
도리를 하나로 총괄하였으니	/ 反以約之
참으로 집대성일세	/ 允矣集成

군신의 의와	/ 君臣之義
부자의 인이	/ 父子之仁
각기 제자리 얻었으니	/ 各得其貞
사람에게 준 교화	/ 其所及人
사방에 두루 미쳐	/ 沛然旁達
모두 전형으로 삼았네	/ 式圍式型

세도 인문과	/ 世道人文
천질과 민이가	/ 天秩民彝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 炳如日星
예부터 지금까지	/ 循古詒今
그 공덕 논한다면	/ 計功論德
어느 뉘 맞설손가	/ 孰與先生
성조의 표창과	/ 聖朝褒崇
다사의 존모가	/ 多士尊慕
태산복두와 같네	/ 岱宗魁衡

### 본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본회 정기 총회 및 30차 학술강연이 지난해 12월 27일 10시 30분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본회 회원과 이 고장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박래호 총무의 사회로 유교 의례를 거행하고, 오인균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2012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를 받고,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산양회보 20호를 발간하여 나누어 주었다. 이어서 ‘河西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광주 향교 유교대학장인 정환담 교수가 강연을 하여 호평을 받았다.

1906년에 춘강 고정주(高鼎柱)는 그의 사위인 인촌 김성수, 친구 송훈의 아들인 고하 송진우와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영학숙(英學塾)을 설립하였다. 1908년에는 창흥학숙으로 확장하였는데, 이것이 개화기 호남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춘강 고정주는 호남교육의 발달을 목적으로 370명이 참여한 ‘호남학회’를 창설하였고, 이의 영향을 받아 호남의 유지들이 자기 고장에 학교를 세우는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1919년에 창평 현감을 지냈던 김형옥의 발의로 1920년에 광주사립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고, 여기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서의 사상은 당대의 시대적 민족적 요구에 하서가 선도적으로 담당하여 온 역할이 컸다고 정교수는 주장했다. 여기

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서 후학들의 자손이 많은 것이다. 기묘명현들의 후손, 후학들의 지리적 민본적 우국애민 사상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서 사상을 통해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회보 20호 참조)

### 산양회 임원 회의

2013년 5월 14일 여원식당

2013년도 상반기 임원회의가 지난 5월 14일 17시에 여원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오인균 이사장을 비롯하여 윤장현, 정채호, 장원석, 정환담, 김재수 부회장, 김용숙 상임고문,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장수 편집위원, 김병국, 김인수 도유사가 참석하였다. 오인균 이사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안건을 논의하였다.

#### 1. 하계 강연회 개최

6월 하순경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하기로 결의하였다. 순창 훈몽재에서 개최하지는 의견이 들어와 여러가지로 논의하였으나, 하계 강연회는 예년과 같이 필암서원에서 하고, 훈몽재 강회에는 산양회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초청 강사로는 “선비 정신의 표상 세종대왕 오늘 우리 사회의 절실한 세종의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한영우 교수에게 청탁하기로 했다.

#### 2. 강의료 인상 문제

지금까지 기본 30만원, 광주권 밖 40만원, 최상급 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10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3. 회원 주소록 및 발송록 점검 인쇄는 이충원 박래호, 김재수가 만나하기로 결의함.

#### 4. 河西會 발족 보고와 승인

김재수 상임 부회장이 산양회를 활성화하고 하서 연구회 모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서회를 발족 하였음을 보고하고 산양회 산하 단체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록 결의하였으며, 필암서원 산양회 카페를 개설하기로 결의하였다.

5. 산양회보 21집 편집 계획을 논의하였다.

#### 河西會 발족, 회장에 김재수

지난 1월 17일 토방에서 김재수, 김성, 김상윤, 김용하, 김병기, 김병원, 김상집이 모여 하서회를 발족하고 회장에 김재수(본회 상임 부회장), 총무에 김상집을 선임하고, 고문에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김재승 교수를 추대하였다.

하서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는데 본손들이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여, 날로 노쇠화되어가는 필암서원 산양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앞으로 河西研究會 창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서 선생의 절의(節義) 정신과 경세사상(經世思想)에 대한 강의안을 개발하는 문제와 장성군과 협의하여 필암서원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6월 15일까지 5차 모임을 갖고 河西 선생에 대해 공부하면서 추진할 일들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하서 사상과 정신의 확산에 카페 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필암서원 산양회 카페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하서회 발족을 산양회 임원회의에 보고하여 河西會를 필암서원 산양회 산하 조직으로 이사회에 서 승인받도록 결의했다.

#### 3월 22일에 필암서원 춘향제 거행 초헌관에 이낙연 국회의원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지난 3월 22일 10시에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을 비롯하여 오인균 산양회 이사장,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이낙연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김양수 장성군수와 김행훈 장성군의회의장, 이상용 장성향교 등 전교 이 고장 유림 200여명이 참석했다.

초헌관에는 이낙연(李洛淵) 국회의원, 아헌관에는 광주의 황의옥(黃義玉), 중헌관에는 전주의 오광교(吳光敎) 유림이 헌작하였다. 진설에 김연생(전주), 집례에 정병후, 大祝에 최국경(대전), 제관에 이현배, 신옥식, 변안섭, 박종철, 김량, 이종창 씨가 수고하였다.

초헌을 맡았던 이낙연 국회의원은 청절당에서 한 강연에서 “안개 낀 20년간 김하서의 출처만이 드높았다. 하서의 출처는 해동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율곡의 말을 들어 하서 선생의 출처의 바름을 높이 평가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모범을 보인 하서는 오늘날 모든 공직자들이 본 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주장했다.

##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

필암서원과 산양회에 1500만원 기부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은 3월 22일 거행된 춘향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허서 선생에 관한 고문서 조사와 책 발간에 써 달라고 필암서원에 1,000만원을, 산양회 활성화에 써 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였다.

필암서원 원장에 취임하신 이래 필암서원에 관계된 일에 적극 참여하여 격려해 주셨는데, 이처럼 큰돈을 기부해 주심으로써 필암서원과 산양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다. 본회 회원들이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본손들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 한국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4월 18~19일 필암서원, 장성문예회관에서

선비의 고장 장성에서 한국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가 등재추진단, 문화재청, 한국서원학회, 9개 서원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8~19일에 필암서원, 장성문예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서원 세계문화유산추진단이 주최하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와 한국서원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18일 오전에는 필암서원을 답사하고, 오후에는 장성문예회관에서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 안동 도산서원의 교육과 활용사례, 서원의 교육과 제향, 운영 관리, 활용 방

안 등에 대한 분과 발표 및 토론이 열렸다. 필암서원 산양회에서는 오인균 이사장, 김용숙 상임고문, 김재수 상임부회장, 김상집 회원 등이 참석하였고, 김인수 문정공유사를 비롯하여 많은 율김 후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인수 도유사가 방문객들에게 河西에 관한 자료들을 나누어 주어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 한국학 호남진흥원 워크숍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림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4월 13~14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호남권 국학자료 현황 조사 및 보존과 활용 방안 연구 사업 착수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사업으로, 국학자료 보존과 활용과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호남권 국학자료 현황조사와 호남진흥원 설립 네트워크 구축, 설립 방안 추진 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서명원 상무 이사, 이상식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송만오, 김광민, 유수영, 조훈성, 조성식, 김용진이세 분과로 나누어 발표하고 청백당에서 토론과 협의회를 가졌다. 나무석 진흥원 이사장, 김양수 장성군수, 김재수 이사가 참여하였다.

## 겨울방학 ‘장성문화 캠프’ 유익했어요

필암서원서 초·중생 47수까지 성황리마쳐

겨울방학을 맞아 선비유적지인 필암서원에서 열린 장성문화캠프가 열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장성군에 따르면 1월부터 4기에 걸쳐 관내와

인근 도시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 문화 캠프’가 지난 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캠프는 기수별로 30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3기만 중학생으로 구성됐는데 조기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실감케 했다.

참가자들은 ▲왕실 교육 ▲편백향냥 만들기 ▲풍등 띄우기 ▲역사 탐방 ▲골든벨 퀴즈 ▲전통무예(택견시범) ▲청백리밥상 및 웰빙 시골밥상을 체험하며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훌륭한 선현들의 삶을 배우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하서 김인후선생 정신 계승 순창 훈몽재 야외 강학소 인기몰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해 순창군이 복원한 훈몽재 옛터에 들어선 야외 강학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은 27일 “유서 깊은 백방산 자락 훈몽재 터에 가로 세로 3m 크기인 초미니 야외강학소를 지난 16일 설치한 후 유학 관련 대학생들의 단기 교육장소로, 관광객들의 문화유적답사지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4일 순창고등학생 150여명이 훈몽재를 찾아 문화유적 수업을 받는 등 향토문화 체험을 했다. 이들은 훈몽재 산장 김충호 선생으로부터 훈몽재에 대한 소개와 순창의 전통, 역사,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절의·문장의 삼정신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훈몽재 산장 김충호 선생은 “지금 바로는 아니

더라도 훈몽재에서 일지문성을 바라보며 공부하면 산천의 영기를 받아 공부도 잘되고 수십년 후에는 정철 선생과 같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며 “칠야삼경(漆夜三更)의 반딧불 역할을 하는 국가동량이 될 인재 양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 선생이 명종 3년(1548년)에 순창 쌍치 점암촌에 초당을 지어 훈몽재라 이름을 짓고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송강 정철, 율계 조희문 등 50여명의 인재를 길러낸 곳이다.

### ‘의병활동 상징’ 장성 오산창의사 전남 유형문화재 지정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72명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오산창의사가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월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전남 유형문화재 제120호인 ‘장성 남문창의비’가 ‘장성 오산창의비와 창의사’로 확대·변경하는 안을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이는 선열들의 의병 활동 내역이 담긴 남문창의비만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 넋과 정신을 추모하는 오산창의사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군이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이뤄졌다.

오산창의사는 장성현 남문에서 의병청을 세우고 오천 김경수 선생을 맹주로 하여금 의병과 군량을 모집해 3차례나 의병 활동을 펼쳤던 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1794년에 창건된 사우다. 대원

군의 전국적인 서원 철폐로 1868년 문을 닫았으나 1934년에 다시 세워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청백리의 고장 長城,  
청렴교육의 산실로 전국에 명성  
본회 회원 김양수 군수, 박래호 총무 헌신**

공직자 비리가 잇따르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이 ‘청렴 교육의 산실’로 부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성 출신 청백리들의 정신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한 현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청렴’이라는 무형의 콘텐츠를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일에는 2013년 제3기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참가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무관 306명이 장성을 찾았다. 이들은 박래호 선비학당 학장의 청렴 특강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조선 3대 청백리로 빛나는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 탐방, 축령산 걷기, 청백 한옥 찾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들을 인솔한 안전행정부 지방 행정연수원 문금주(46) 과장은 “간부직원으로 가는 초입에 공직자의 기본이 되는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게 됐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안내한 박기열(59) 부군수는 다름 아닌 박수량 선생의 후손. 박 부군수는 “백비는 박수량의 청렴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조선조 명종이 선생

의 청렴함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비문없이 그대로 세우라고 한데서 유래 한 것”이라며 “유혹의 순간, 말 없이 서 있는 저 백비를 떠올리며 털어버려라”고 후배들을 다독였다.

이들은 편백나무로 가득한 축령산을 찾아 산보를 하며 백비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겼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실시된 이 청렴교육 코스를 찾은 공직자, 기업 직원 등은 3일 현재까지 모두 106개 기관에서 1만 5856명에 이른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자칫 고루할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지금 우리가 왜 중시해야되는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교육을 받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며 “장성을 찾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본 회원 김양수 장성군수  
중앙공무원 교육원으로부터  
청렴교육 기여로 감사패 받다**

장성군의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은기 중앙공무원원장으로부터 김양수 장성군수가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군이 공무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 청렴 정신을 효과적으로 잘 교육하여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였기에 주어졌다. 이에 더하여 장성군에서는 임란과 한말의병 활동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장성이 청렴 고장에 이어 호국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名	金額
광주 서구 安龍鎬	30,000원
광주 서구 金相集	30,000원
광주 북구 金炳源	30,000원
광주 광산구 金河培	40,000원
전남 화순 金星	30,000원

## 特別會費 誠金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名	金額
필암서원 원장 朴秉濠	5,000,000원
대전 宋俊彬	100,000원
광주 金容淑	100,000원
광주 金相允	100,000원
광주 尹漳鉉	200,000원
광주 金寅洙	200,000원
훈몽재 山長 金忠浩	100,000원
광고료 - 삼양 홀딩	2,000,000원

※ 20호의 광주 북구 김병국 별유사 30만원은 본회 이사 김병국(아차실)으로 정정함

## 추모 화환

울산김씨 대총회장 김달수 / 광주향교 전교 정원석  
 성균관 광주지역 본부장 강대욱 / 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장성종친회장 김광 / 장성울산김씨 공직자회  
 광주향교 모성회장 김중채 / 대로서원 원장 김동현  
 황룡면 농협조합장 / 밀동회 회장 김종곤  
 그레이스 회원 김동원

## 2013年 3.22(陰曆 2.11) 筆巖書院 春享祭 獻誠金

금액	성명	주소
10,000,000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5,000,000	김상하	재단법인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2,000,000	김범수	미술학 박사(본손)
500,000	오인균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500,000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10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안상현	남원시 금지면 태내리 은재당 후인
50,000	정종현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 협의회장
50,000	변안섭	
50,000	김재수	필암서원 산양회
200,000	황의옥	이현관
100,000	김정수	전 대총회 회장
50,000	김성수	장성읍 신전길 54 맥동파 회장
200,000	김양수	장성군수(본손)
50,000	김영수	황룡면장
50,000	변원	봉암서원 별유사
50,000	김상권	전 황룡 조합장(본손)
100,000	송관용	농협은행 장성지부장
100,000	영귀서원	전남 곡성군 옥괴면
100,000	김문수	한국 MS 연구소 소장
100,000	김종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50,000	양원섭	북구 오치동 삼익@101-1201
100,000	김창수	계파 도유사
100,000	김관중	장파 도유사
100,000	김종환	문정 침묵회 회장
50,000	이재영	장성 산림조합장
300,000	양희장	고암 종친 회장
20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총회장
50,000	김상노	서울 종친 전 대총회 사무장
100,000	문경규	전 담양 군수
100,000	김경수	전 통신공사 장성지부장(본손)
30,000	공영길	북구 운암동 삼호@ 1-705
20,630,000	합계	

# - 알 림 -

2013년 31차 학술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요일) 10 : 30
- 장 소 :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
- 주 제 :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선생 존승: 김문준(건양대 교수)

## 2. 원고 모집 안내

- ① 河西 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 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3. 새 주소록 변경 안내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 변경된 전화번호도 꼭 적어주십시오

##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성 농협 (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6712-8881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8.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8.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안팎품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함.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伴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の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 (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현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박병호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